

16일 Market Index	
코스피 2488.97 (-5.49)	코스닥 698.53 (+4.80)
금리 (연평균) 2.553 (+0.012)	환율 (원/달러) 1437.65 (+4.65)

metro 경제



반도체법 등 친기업 정책 ‘올스톱’... 사업계획 손질 불가피

재계, 대내외 불확실성 최고조
美 트럼프 정부 출범 ‘관세 리스크’
尹 탄핵안 가결... 위기상황 겹쳐
삼성, 오늘부터 사업계획 검토
LG, 이번주 확대경영회의 개최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헌법재판관. /뉴스1

대내외 정국이 급변하며 재계가 내년 사업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정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관세 리스크와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 전(前)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탄핵 리스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대내외 위기 상황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수많은 친기업 정책이 ‘올스톱’ 되면서 사업 계획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3·4면〉**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은 계열사별 영향과 고객사, 또 해외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시점에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어서다. 다만 지난 비상계엄 선포 직후처럼 긴급회의를 소

집하는 등의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탄핵 쇼크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차질 ▲해외 브랜드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기민한 대비책 마련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경제정책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사업 계획 수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간 주요 기업들은 12월에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결정한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친기업 정책들이 모두 좌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친기업 관련 법안들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 분야 입법 과제 23개 중 여야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 12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 1조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설립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을 지원받게 돼 투자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17일 ~19일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핵 정국 사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한종희 DX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7~18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주재로 19일에 각각 회의를 연다.

LG전자는 이번주 조주완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확대 경영회의를 개최한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尹 탄핵’ 심판 사건 27일 변론 준비기일

헌재,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결정됐다. 현재는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으로는 정 재판관이 맡게 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표결하는 평의(評議)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된 인물이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현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현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했다. **〈원승일 기자 won@〉**

한동훈 “정상임무 불가능”... 146일만에 ‘전격 사퇴’

“비상계엄, 고통받은 국민께 죄송 탄핵 찬성, 여전히 후회하지 않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해 더 이상 당 대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퇴의 변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리 기자회견장 앞에서 한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대기했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퇴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하다.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투버들 같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

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양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냐고 물었다”라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이, 제 인생의 많은 장면이 스쳐 갔다. 마음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본사인사
편집국장 윤 휘 중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송석준, 여당 중앙위 의장 사임... ‘사측생각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 /사진 뉴스1
▲‘계엄 옹호’ 외교부 외신 PG 자료 논란... 조태열 “알지도 동의도 못해”

▲박찬대 “윤 탄핵에도 할일 첩첩산중... 책임자 엄벌·민생 입법 신속해야”
▲민주 ‘이재명은 친형도 정신병원 감금’ 발언 김용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악화로 병원 입원
▲우재준 의원 “탄핵 사태 한동훈 대표 책임 아냐” /사진 뉴스1